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상승세 지속

-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발표
-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9.4%로 '24년 상반기(9.2%) 대비 0.2%p 증가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32.9%로 '24년 상반기(30.2%) 대비 2.7%p 증가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에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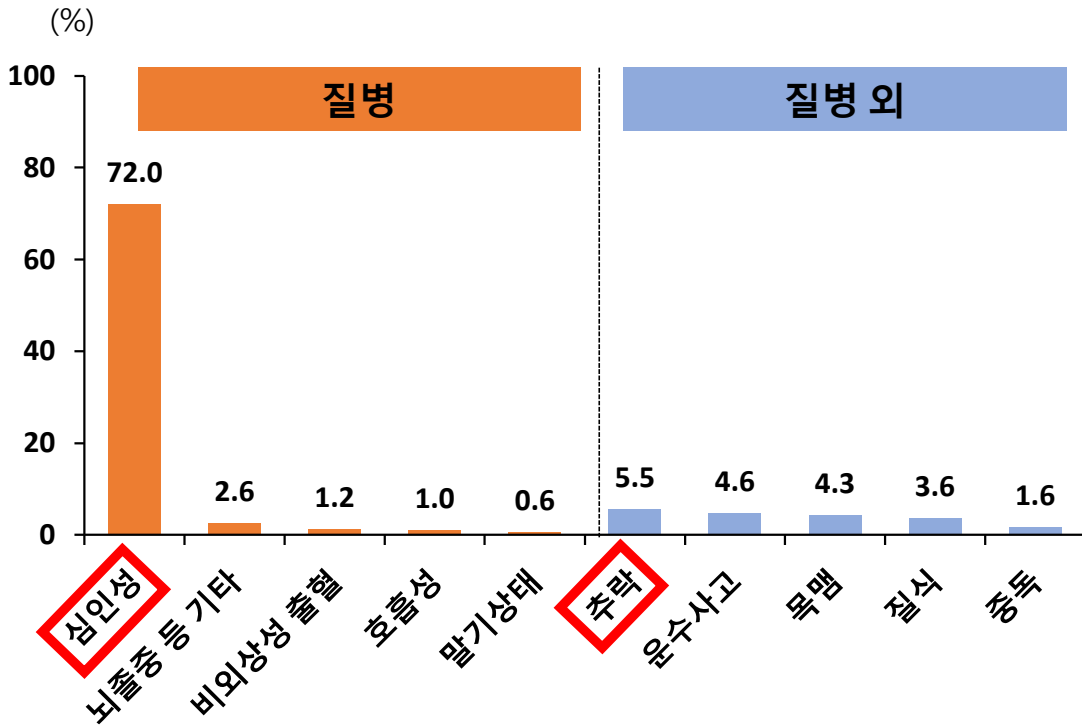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6,229건 중 16,045건(98.9%)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실시('08년~)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 자료부터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1.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은 심장 질환 등 질병, 주요 발생 장소는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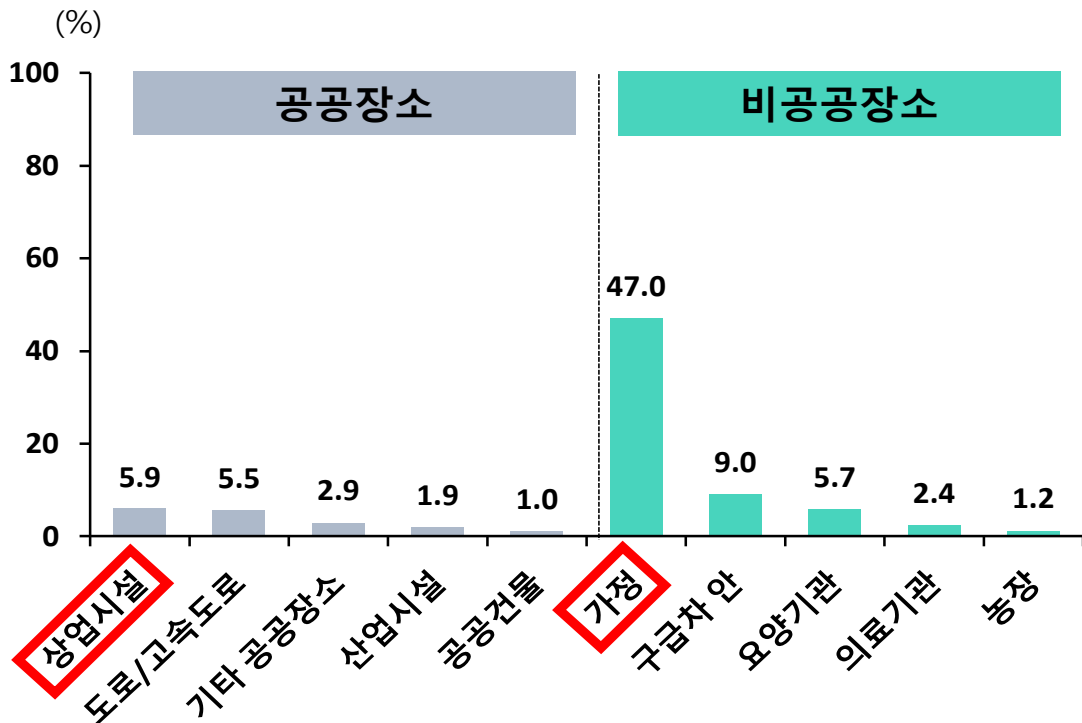
'25년 상반기 조사 주요 결과, 심인성(심근경색, 부정맥 등),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6%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땀 등 질병 외에 의한 발생이 22.0%였다(그림 1 참고). 주요 발생 장소로는 상업시설,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18.6%)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5.6%)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7.0%로 가장 많았다(그림 2 참고).

[그림 1]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2025년 상반기)



* 자료원: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그림 2]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장소(2025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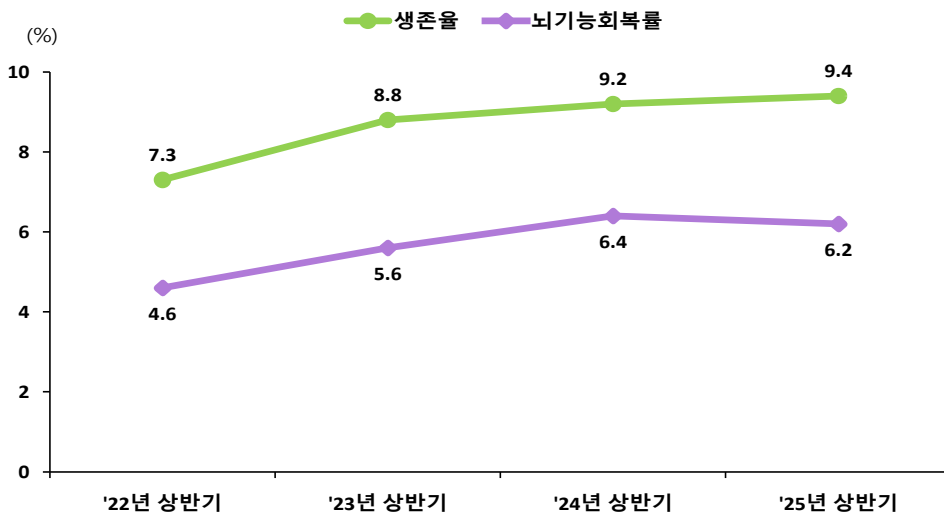


* 자료원: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2.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을 지속 상승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생존자’)는 1,501건, 생존율은 9.4%로 '24년 상반기(9.2%) 대비 0.2%p 증가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뇌기능회복자’)는 1,001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6.2%('24년 상반기 6.4% 대비 0.2%p 감소)였다(그림 3 참고).

[그림 3] 급성심장정지 생존율¹⁾ 및 뇌기능회복률²⁾ 추이(2022년 상반기~2025년 상반기)



1) 생존율: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응급실 진료결과가 퇴원이거나 입원 결과가 퇴원, 자의퇴원, 전원인 경우) 환자의 분율

2) 뇌기능회복률: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뇌기능이 회복된(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이며, 통상적으로 신경학적 결과(CPC Scale,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Scale)가 1, 2점인 경우) 환자의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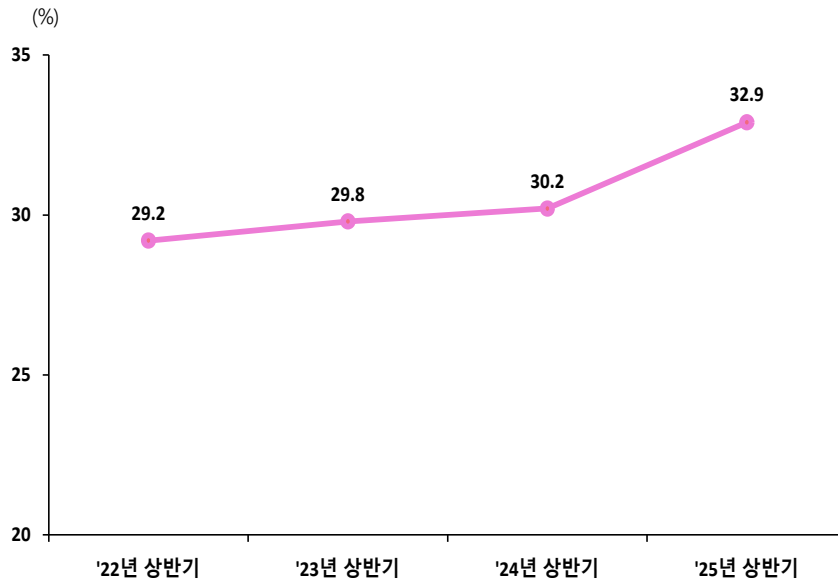
* 자료원: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3.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시행 시 생존율은 미시행 대비 2.7배 차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500건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2.9%였으며, '24년 상반기(30.2%) 대비 2.7%p 증가하였다(그림 4 참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율은 15.3%(생존자 수 688건), 뇌기능회복률은 11.5%(뇌기능회복자 수 516건)였다. 반면,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834건으로, 이 중 생존율은 5.6%(생존자 수 102건), 뇌기능회복률은 3.3%(뇌기능회복자 수 61건)에 불과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미시행된 경우보다 생존율은 2.7배, 뇌기능회복률은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그림 5 참고).

* 일반인: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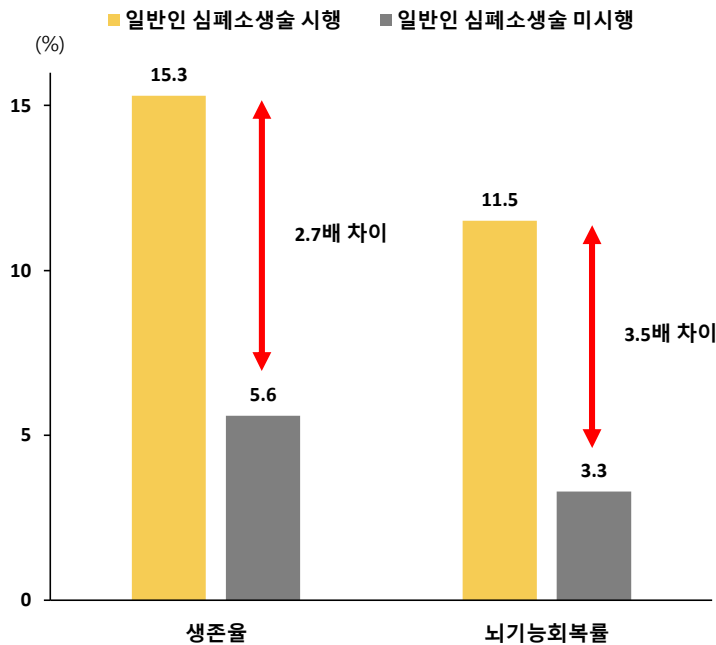
[그림 4]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¹⁾ 추이(2022년 상반기~2025년 상반기)



1)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

* 자료원: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그림 5]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¹⁾ 여부에 따른 생존율²⁾ 및 뇌기능회복률³⁾(2025년 상반기)



1)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

2) 생존율: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응급실 진료결과가 퇴원이거나 입원 결과가 퇴원, 자의퇴원, 전원인 경우) 환자의 비율

3) 뇌기능회복률: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뇌기능이 회복된(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이며, 통상적으로 신경학적 결과(CPC Scale, Cerebral Performance Category Scale)가 1, 2점인 경우) 환자의 비율

* 자료원: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4.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중요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격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환자를 목격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확대와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공호흡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슴압박소생술만이라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라며, “환자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국민 누구나 응급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연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는 2026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국가손상정보포털(<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 통계집 >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붙임> 급성심장정지조사 개요

담당 부서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희 (043-219-2910)
		담당자	연구관	이정은 (043-719-7411)
			선임연구원	김지수 (043-719-7416)

- (목적) 급성심장정지 관련 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통하여 급성심장정지에 따른 생존율 제고

* 국가승인통계('11년~, 승인번호 제117088호)

- (대상)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전수

* (급성심장정지) 급작스럽게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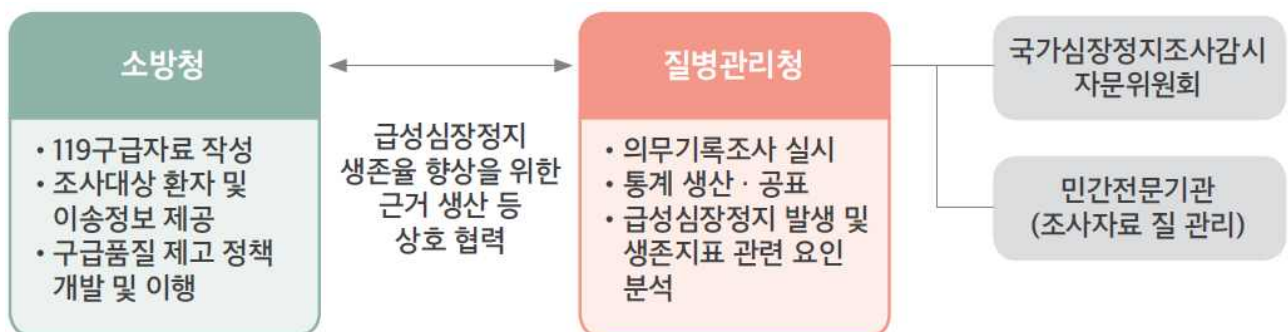
○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 이송 및 조사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상반기
119구급대이송 환자 수(건)	31,652	33,235	35,018	33,586	33,034	16,229
의무기록조사 완료 수(건)	31,417	33,041	34,848	33,402	32,850	16,045
조사율(%)	99.3	99.4	99.5	99.5	99.4	98.9

- (방법) 구급활동일지 등으로부터 조사대상 추출, 이송병원 협조 하에 의무기록조사

- (내용) 발생 시 특성, 병원 전 처치내용(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등), 응급실 처치내용, 입원 및 전원 현황, 생존 여부 및 신경학적 상태 등

- (수행체계)



- (주요지표) 발생률, 생존율, 뇌기능회복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등

- (결과공개) 통계집 발간, 심포지엄 개최, 원시자료 공개